

[우리 동네 은빛 발자취]

장춘시록원구조선족로인협회 올해 30 세

새시대의 새 로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2025년 7월, 협회 회원들이 여름나들이 길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설립과 초기 기반 마련

1996년 5월 10일에 설립되어 올해 이십이년을 맞는 장춘시록원구조선족로인협회는 현재 회원이 48명이며 그 중 공산당원이 19명이다. 최고령 87세, 평균연령이 76세인 이 협회 회원들은 3개 소조로 나누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협회 로회원들은 “설립 초기 가장 큰 난관은 활동 장소와 자금이 전무한 것이었다.”며 “황하운 초대회장이 직접 회원들을 동원하여 기부금을 받았고 지도부 일군들과 함께 재장춘 조선족 출신 간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해 수개월간의 노력 끝에 모은 5만원 자금으로 비로소 임시 활동 장소를 마련하고 필수 비품, 악기, 무용복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초창기의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을 회고했다.

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

홍순희 회장의 소개에 따르면 역대 협회 지도부는 회원들을 조직해 소속 사회구역의 활동 때마다 빠짐없이 적극 참가해왔다. 가두에서 진

행하는 나무심기, 환경정화, 문예 활동에도 항상 앞장에 서서 큰 성과를 거둬오르며 해당 분야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석찬선생이 회장을 맡은 기간에는 3년 연속 록원구 화평대로(和平大路) 소재 모 무장경찰부대를 찾아가 위문공연을 펼쳤다. 해마다 무우 100근 정도를 팔려 반찬을 만들고 배추김치는 물론 떡과 여러가지 음식을 싸들고 가서 함께 교류활동을 했던 일들은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한 로회원이 말했다.

동시에 협회 활동도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장춘시문화국과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에서 주관한 공연에 20여차례 참가해 많은 상을 받았다. “허창범선생이 회장을 맡았던 2013년 6월, 길림성 제 5회 로인 공채공연대회에서 협회의 한순희선생이 창작한 대형 무용 <대화타령>이 금성상을 수상했을뿐더러 그 해 10월 길림성군중예술관이 조직한 군중문예공연 활동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지금까지도 협회의 큰 자랑거리이다.”라고 다른 한 로회원이 말했다.

활발한 로년생활과 공동체 통합

협회는 현재 년령대로 보면 예전에 비해 많이 고령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순희 회장은 협회의 대표적인 활동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첫째는 ‘이야기 대회’로 3년째 이어지며 로인들이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고 오늘의 행복나눔을 함께 되새기는 자리로 되고 있다. 둘째는 ‘소조별 노래경연’으로 혁명가요와 민족 노래를 부르며 소조별로 경쟁하고 우정을 다진다. 셋째는 정기적 건강강좌와 계절별 체험 활동이다. 매주 건강상식을 배우고 봄과 가을에는 야외 나들이를 하며 겨울에는 실내 게임과 모델쇼로 추위를 이겨낸다. 특히 6.1 아동절에는 붉은벚다이를 매고 어린시절의 노래와 춤을 추며 순수했던 기쁨을 되새긴다.

홍순희 회장은 협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3명의 인물을 높이 평가했다. “한순희선생은 여든을 훌쩍 넘긴 고령인데도 그동안 28개의 무용 작품을 창작했다. 또 한분은 리명숙 소조장이다. 그는 사비로 장춘시정월실협학과 학생 한명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2년 동안 학비, 학용품, 옷까

지 사심없이 챙겨주면서 뒤바라지해 주었다. 협회는 조선말 신문, 잡지 구독과 조선어방송 청취를 중요하게 여겨왔는데 85세의 박옥경선생은 20여년 동안 <길림신문>과 <로년세계> 잡지를 여생의 ‘필독도서’로 삼아 한해도 빠짐없이 구독하고 있다.”며 홍회장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협회는 지속적으로 사회공동체 통합에 기여하며 지역 교육 및 복지 증진에 적극 참여해왔다. 2004년부터 록원구조선족소학교와 ‘사회단체-학교 공동건설단위’ 관계를 맺고 도서 500권을 기부하고 아동절마다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빈곤학생 돕기를 이어왔다. 또한 록원구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조선족 학생 한명이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첫 모금에서 1만 5,000여원을 모아 이 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지원했다. 력대 새일대관심사업위원회 주임들은 누구든 해마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교통비 보조금을 학교 운동회에 꼬박꼬박 지원했다. 협회 구장조직은 코로나 방역 기간과 영길현 구정지역이 특대 홍수피해를 입은 후 각각 1,000원씩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왔다.

사회구역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2023년 협회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했다. 민족단결과 민족공동체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연간 임대비 7,000원을 지불해야 했던 활동실을 떠나 록원구 영빈가도(迎宾街道) 만성사회구역(万盛社区)에서 제공한 100여평방미터 규모의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지금은 독립적인 무용교실도 생겨 두곳의 활동실을 오가며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운영이 가능해졌다.

홍순희 회장은 현재 협회는 회원 고령화와 젊은층 류입이 부족한 문제에 직면해있으며 정기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기본 운영비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새시대의 새 로인으로 살아가자’는 구호 아래 매주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활기를 잃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박명화 정현관 기자

압록강변 조선족 로인들 여성의 날 즐겁게

장백현조선족로인협회 ‘3.8’부녀절 경축대회 개최



8일 오전,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 ‘3.8’국제로동부녀절 경축대회 및 2026년도 개학식이 장백조선족자치현로인활동중심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경축대회에는 장백조선족자치현인대 상무위원회 전임 부주 임 전태선, 현인민부장부 전임 부장 김철용, 현조선족로인협회 전임 회장 김중선 등 레빈들이 초청을 받고 참석했다. 길림성조선족로년협회친목회 부회장이며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 회장인 김영희가 협회 지도부를 대표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여성 회원들에게 뜨거운 명절의 인사와 함께 진심어린 명절의 축복을 전했다.

최근년간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는 매년 ‘3.8’절을 맞아 문예공연, 경축모임, 옷날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여성 회원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으며 ‘아버지의 날’에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남성 회원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협회는 남성과 여성 회원들이 서로

로 돕고 배우며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발전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특히 여성 회원들은 부모 효도, 남편 내조, 자녀 교육에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자립적이고 강한 인의지로 가정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협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협회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김경애, 리해련, 심영애, 한경자, 장영희 등 5명에게 ‘3.8’홍기수 영예칭호를 수여하고 기념품을 발급했다.

표창식에 이어 협회와 여러 분회 및 악기팀에서 마련한 독창, 소합창, 합창, 조선족 무용, 사교춤, 관악합주, 가야금병창, 통소합주 등 다채로운 문예공연이 펼쳐지면서 질은 명절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협회의 여성 회원들은 하루 동안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명절을 즐겁고도 행복하게 보냈다.

/ 최창남



대련시감정자조선족로인협회

다양한 활동으로 3.8절 경축



3월 10일 오전, 화려한 민족복을 차려입은 안로인들과 머리에 화려한 시사학속 보고회를 열어 로인들로서 축하를 받으며 ‘피꽃새’라 불리는 독창가수 윤청도 멋진 노래를 열창하며 로인들의 가슴을 들뜨게 했다. 여성무용 <아리랑련가>는 이날 공연 분위기를 고조해 끌어올렸다.

이날 공연 분위기를 고조해 끌어올렸다. 김순길 회장은 “협회는 지난해 63명 회원을 조직하여 여러차례 시사학속 보고회를 열어 로인들로서 축하를 받으며 ‘피꽃새’라 불리는 독창가수 윤청도 멋진 노래를 열창하며 로인들의 가슴을 들뜨게 했다. 여성무용 <아리랑련가>는 이날 공연 분위기를 고조해 끌어올렸다.”

김순길 회장은 “협회는 지난해 63명 회원을 조직하여 여러차례 시사학속 보고회를 열어 로인들로서 축하를 받으며 ‘피꽃새’라 불리는 독창가수 윤청도 멋진 노래를 열창하며 로인들의 가슴을 들뜨게 했다. 여성무용 <아리랑련가>는 이날 공연 분위기를 고조해 끌어올렸다.”

이어 전체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생활을 안겨주고 다채로운 문예공연을 펼쳤다. 대합창 <군민단결 금성철벽이라네>는 이 시대 군민들의 정신면모를 열정적으로 구가했다. 여성무용 <녀성은 꽃이라네>와 새장구

춤 <고향의 떡메소리>에 이어 박도근, 조영학, 리부규 등 남성 회원들도 우렁찬 목소리로 <축배>를 불렀고 협회의 ‘피꽃새’라 불리는 독창가수 윤청도 멋진 노래를 열창하며 로인들의 가슴을 들뜨게 했다. 여성무용 <아리랑련가>는 이날 공연 분위기를 고조해 끌어올렸다. 김순길 회장은 “협회는 지난해 63명 회원을 조직하여 여러차례 시사학속 보고회를 열어 로인들로서 축하를 받으며 ‘피꽃새’라 불리는 독창가수 윤청도 멋진 노래를 열창하며 로인들의 가슴을 들뜨게 했다. 여성무용 <아리랑련가>는 이날 공연 분위기를 고조해 끌어올렸다.”

/ 리삼민특약기자



10여년을 자원봉사에 기여한 팔순 로인

—밀산시조선족직공활동실 동순희의 이야기



밀산시조선족직공활동실의 당구대를 알뜰히 닦고 있는 동순희로인

밀산시조선족직공활동실(이하 ‘활동실’)에는 10여년간 활동실을 자기의 집으로, 모든 회원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여기고 가장 평범한 청결 일터에서 가장 비범한 이야기를 써낸 한 팔순 로인의 감동적인 사적이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81세인 동순희로인은 일찍 흑룡강성 가목사시 탕원현교육국, 이춘서림강철공장, 밀산철합금공장 등 직장에서 사임하다가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 후 20여년 활동실과 인연을 맺어온 동순희로인은 12년전 제1조장을 담임하면서부터 자원적으로 활동실의 ‘정소부’ 직책까지 도맡아하기 시작했다.

활동실은 밀산 조선족 대중들의 여

가오락, 문화교류, 민속전승, 민심집결의 중요한 진지로서 인원 출입이 빈번하고 일상 활동이 밀집되어있으며 경상적으로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가 열리는 장소이다. 그만큼 청결 유지 임무가 크고 기준이 높으며 세부사항도 많다.

동순희로인은 청결 책임을 떠맡은 첫 날부터 직책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깨끗하고 정결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자신의 직책 기준으로 삼았다. 매일 아침, 날이 어스푸레 밝아오면 그는 일찍 활동실에 도착하여 하루의 바쁜 일정을 시작했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바닥을 청소하고 문과 창문을 닦고 의자와 방치된 물건들을 정리하며 위생 사각지대를 청소하는 등 모든 부분을 꼼꼼하고 빈틈없이 했다. 문예공연, 명절축제, 민속활동 등 대형 행사 때면 늘 연장근무를 했다. 그는 빠른 시간내에 사람들을 동원하여 고효율적으로 정리, 청소하여 제때에 깨끗하고 질서있는 환경을 회복하여 모두가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매달마다 한번씩 대청소를 하고 계절이 바뀔 때면 본격적인 ‘계절 맞이 대청소’를 하여 환경과 건강까지 책임지는 친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그의 정성어린 관리하에 300평방미터의 활동실 바닥은 항상 밝고 깨끗했으며 100여명이 쓰는 화장실도 냄새

가 없었다. 땀이 철철 흐르는 여름 폭서에도, 찬바람 휘몰아치는 엄동설한에도, 심지어 설날 아침에도 누가 알아주든 말든 득실과 보수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10여년을 자신의 부지런한 손으로 민족문화전진의 장구를 닦아왔다.

가족들은 그의 높은 연세를 고려하여 여러차례 일을 그만두고 편안하게 보내라고 권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활동실은 바로 나의 집이다. 집안이 깨끗하면 모두가 즐겁고 나도 마음이 기쁘다.”고 하면서 힘든 그 이상으로 행복감을 느꼈다. 손에 비자루와 걸레를 들고 묵묵히 활동실 복도, 대청 사이를 누비며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의 소박한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얻었다.

리더는 직책을 의미한다. ‘정소부’ 외에 활동실 제1소조 조장직을 맡은 동순희로인은 리더 역할에 충실하며 20여명 되는 대우를 잘 관리하고 이끌어 나갔다. 일상사업에서 그는 자신을 엄격히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주동적으로 책임지고 솔선적으로 시범을 보였다. 굵은일, 힘든 일을 찾아했고 조원들에게 가족 같은 사랑과 배려를 주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고령의 조건, 독거 조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직면해 명절 때마다 찾아다니며 위문했고 무력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조원들을 찾아 깊고 폭넓은 교감

을 나누었다. 생활난에 쪼들리고 있는 조원들에게는 사랑의 성금을 보내주었고 병원에 입원해 간병할 사람이 없는 조원들은 몸소 며칠씩 곁을 지키며 간병해주었다.

작은 사랑, 작은 나눔은 큰 힘이 되었고 그동안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의 노력과 인솔 아래 제1소조 모든 조원들은 단결협력하고 하나되어 활동실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존경과 칭찬을 한몸에 받는 본보기로 되고 아름다운 조화사회 건설의 길에서 따뜻하고 반짝이는 풍경으로 되었다. 동순희로인도 해마다 활동실의 우수간부, 우수회원으로 당선되었다.

“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한번 하기는 쉽지만 평생 좋은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동순희로인은 십여년을 하루같이 보답을 바라지 않고 초심을 견지하면서 활동실의 환경 보장과 따뜻함을 지켜주었고 조장으로서 집체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다.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가는 그의 참된 인생관과 가치관은 요즘 세상에서 한결 빛을 내고 있다.” 활동실 리준희 부회장은 꾸준한 자원봉사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삶의 여백을 진하게 물들여 가고 있는 동순희로인을 이같이 높이 평가했다.

/ 흑룡강신문

